

---

# 2009년 업무계획

= 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림수산식품의 시대로 =

---

2008. 12. 22.

농림수산식품부

# 순서

I. 평가와 전망 .....	1
II. 2009년도 중점 추진방향 .....	4
III. 핵심 정책과제 추진방안 .....	5
IV.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 .....	50

# I. 평가와 전망

---

## 1 | 2008년 평가

---

- '08.2월 농림수산식품부 출범 이후, 농정의 패러다임 전환 등 시장개방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 구축
  - 정책범위 : 1차 산업 → 1·2·3차 산업
  - 정책고객 : 생산자 중심 → 소비자 및 식품가공업체 포함
  - 시장 : 내수형(방어적) → 수출형(공격적)
  - 지원방식 : 평균·분산 → 선택·집중
  
- 새 정부 농정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국민적 신뢰 저하와 함께 정책 추진 동력 약화
  -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, 쌀 직불금 부당 수령문제, 농협비리 등이 표면화되면서 농림수산정책전반에 걸쳐 불신 심화
  - 한편,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자재값 급등으로 농어가 경영 여건이 악화
    - 기상호조 등에 힘입어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량은 크게 증가
    - \* 농자재 가격상승률('08/'07 대비) : 복합비료 129.2%, 사료 49.1

- ◇ 신뢰 회복과 시장 창출에 역점, 재도약할 수 있는 토대 마련
  - 현안 사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, 농어업인과 소비자 입장에서 업무에 대한 생각·시스템·방식을 전환, 새 출발의 기회로 활용

## 가 대외적 여건

-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적 실물경기 침체 지속 전망
  - 산업생산과 소비 위축으로 세계 경제 및 교역규모 축소 예상
    - \* 세계교역량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(KDI) : ('07)6.5% → ('08)5.2 → ('09)4.4
- 한미 FTA, 한EU FTA,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, WTO/DDA협상 진전 등으로 농어업분야 경쟁 가속화
  - 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반발 및 사회갈등 심화 우려
- 국제 원자재값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, 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해 사료·비료 등 농자재 가격의 불안요인이 상존
  - 원유가격 인하로 면세유 가격은 전년수준으로 회복했으나, 비료·사료 가격은 예년보다 높은 수준 유지 전망
    - \* Dubai유(\$/B) : ('07.11말) 84.1 → ('08.11말) 55.7 → ('08.12.12) 42.5
- 환율인상, 한식에 대한 관심 증대로 농식품 수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, 경기침체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로 어려움 예상
  - '08 농식품 수출은 마케팅 강화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9.7% 증가
    - \* 농림수산식품 수출 : ('06) 34.1억불 → ('07) 37.6 → ('08p) 45.0
  - 일본 중심에서 중국·러시아 등으로 수출시장 다변화
    - \* 농식품 수출비중 : ('99) 일본65.7%, 러시아1.9, 중국4.7 → ('08) 일본33, 러시아6.5, 중국12.4

## 나 대내적 여건

□ 농수산물의 과잉생산기조에도 경기불황에 따라 소비위축 등 농림수산물식품 연관 산업의 성장세 둔화 예상

○ 농수산물 소비 감소 등으로 도·소매업 판매 부진 예상

\* '09 소매시장 성장률은 3%로 '08 대비 2.6%p하락 전망(대한상의)

\* '08.10월 현재, 도·소매업판매지수는 전월 대비 2.1% 하락(통계청)

○ 향토산업 등 농어촌산업 기반이 취약한 실정

\* '00~'05기간 중 일반 市의 평균 사업체수는 13.4% 증가한 반면, 郡의 평균 사업체 수는 2.3% 감소

□ 미국산 쇠고기 수입, 멜라민 사태 등을 겪으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

○ 도시민은 식품 구입 시 안전성, 품질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

\* 육류 : 원산지-안전성-품질 順, 과일·채소 : 품질(맛)-안전성-원산지 順,  
수산물 : 품질(맛)-원산지-안전성 順(KREI, '08.11월)

□ 귀향·귀농 인구가 증가하고, 농어촌 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

○ 지난 IMF시절,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귀농인구가 급격히 증가

\* 귀농추세 : ('97) 1,841명 → ('98) 6,409 → ('99) 4,118 → ('03) 885 → ('07) 2,384

○ 환율 강세로 해외 관광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,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대한 수요는 증가 예상

\* 농촌관광객 전망(KREI) : ('07) 45백만 명 → ('08) 49 → ('09) 53 → ('10) 57

## II. 2009년도 중점 추진방향

### 위기를 넘어 새로운 농식품의 시대로

#### 4대 목표

농정  
변화와 개혁

농어업  
역량 강화

농수산물  
수요 창출

농어촌  
삶의 질 향상

#### 핵심 과제

-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
- R&D 개편 및 녹색성장 지원
- 직불제 개편
- 유통구조 개혁
- 농식품 수출 확대
- 해외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

- 식품산업 육성
- 안전한 식품 공급
- 농어가 경영안정
-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
- 저소득·취약계층 생활 지원
- 농어촌 산업 활성화

일자리 창출, 재정 조기 집행, 투자 유치 확대

### Ⅲ. 핵심 정책과제 추진방안

---

#### 1 협동조합 및 공공기관 개혁

---

##### 가 협동조합 개혁

###### (1) 농협 개혁

- ◇ '농업인의 농협'으로 거듭나도록 지배구조 개선, 경제사업 역량 강화 및 인적 쇄신 등을 강도 높게 추진
  - 「농협개혁위원회」의 건의를 토대로 개혁안을 마련('09.1월) 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

###### □ '회장 권한 축소, 이사회 기능 강화'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

- 회장의 대표이사 등 인사추천권 배제, 실질적 명예직화
-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
- 이사회의 실질적 의결 기구화 및 감사기구 독립성 강화

###### □ 경제사업 활성화로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회복

- 중앙회 사업대표이사의 집행 권한 강화, 책임경영 체계 확립
  - '집행임원'은 이사회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을 책임지고, 이사회는 집행내용의 성과를 평가하고 감독하는 방식
- 일선조합의 광역화 유도를 위한 여건 조성
  -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출자자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
  - 조합선택권을 허용하여 조합 간 경쟁 및 합병 촉진
  - 조합원 자격제도 엄격화, 부실조합 기준 상향 등

□ **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및 홍보 강화**

- '09년도에 일선 조합장선거가 388건(33%) 예정되어 있어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
  - 선관위의 '선거부정감시단' 운영과 연계, 조사·단속 강화
- 농협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 '선거관리기구' 조기개설('08.12월중), 공명선거 제도 및 홍보

□ **중앙회의 신용이익금을 경제사업 활성화에 우선 지원**

- 교육지원비 편성권을 경제대표이사에게 이관(현행:전무이사)
  - \* 농산물 수집, 가공·처리 및 도매거래 확충 중점 지원
- 농기계 임대은행과 같은 농업인 공동경제사업 지원 강화

□ **농협중앙회 인적쇄신과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**

- 인력감축 및 상위직급(1~2급) 통·폐합, 중앙조직 20% 이상 슬림화
- 자회사 통합, 수직계열화 또는 매각 추진

□ **전문가·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농협개혁위원회(11명)에서 단기간 내 개혁안을 도출**

- 그간 제시되었던 농민단체 의견과 검토 자료를 최대 활용
- '09.1.3일까지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 농협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을 최종 정리 후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 추진

실 천 계 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협법 개정(2월)</li> <li>○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- 연구용역 완료 (2월)</li> <li>○ 인적쇄신·구조조정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·경 분리 검토(4월~)</li> <li>○ 농협법 하위법령 개정 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·경 분리 검토 결과에 맞춰 농협법 개정(안) 마련 (12월)</li> </ul>



## (2) 수협 개혁

- ◇ 조기 경영정상화 및 강력한 개혁을 통해 어업인을 위한 수협 기능 회복
  - 수협개혁위원회 제안서('09.1)를 토대로 발전방안 수립

### □ 중앙회는 지배구조 개편, 인력·조직 감축 등 경영효율 극대화

- 지도·경제 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전문경영인체제로 전환하고, 중앙회장은 비상임화 하여 대외활동에 전념
  - 중앙회장·일선조합장 선출제도 개편
  - \* 수협법 개정('09.2)과 하위법령 개정 및 개정안 시행('09.8)

### ○ 인력 감원, 예산 절감 및 사업구조 개편

- 판매 사업장 자회사 전환, 적자 사업장 통폐합
- 장기적으로 신용사업부문(수협은행)은 자회사로 분리(독립성 강화)

### □ 부실심화로 파산이 우려되는 완도수협은 '09년 초 계약이전을 완료하고, 기타(6개) 수협은 '09년부터 단계적 합병 등 통폐합

- 부실수협 구조조정 재원 확보 및 예금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확충
- 일선수협 건전경영을 위해 출자금 증대, 무자격 조합원 일제 정비 및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실시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○ 지배구조 개편 및 개혁 방안 마련(2월)	○ 수협법 하위법령 개정 및 세부 개혁 추진(6월) - 중앙회 구조조정 등 추진	○ 중앙회 지도·경제 사업 부문 통합(12월) ○ 신용부문 자회사 설립 방안 마련(12월)

### (3) 산림조합 개혁

- ◇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한 산림조합 육성
  - 중앙회 인력 15% 감축, 전 직원 임금 동결 및 부실조합 구조개선

#### □ 중앙회 및 부실산림조합 구조조정으로 경영효율성 극대화

- 중앙회조직을 슬림화(100명 감축, 15%)하고, 임원급 임금 감액 및 전 직원 임금동결 추진
  - 3월까지 중앙회 조직 10% 감축, 12월까지 5% 추가 감축
- 부실조합은 구조조정, 부실우려조합은 경영개선을 추진하고, 분기별로 이행상태 평가
  -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경영체제 확립

#### □ 중앙회장의 인사권 축소를 통한 경영투명성과 전문성 제고

- 상근임원(부회장)은 '인사추천위원회'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
- 중앙회 부서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직위 개방화 추진

#### □ 현장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산림경영지도 활성화

- 일반산림경영지도원을 특화품목전문지도원으로 전환하여 전문화·특성화 유도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 천 계 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원급 임금 감액 및 전 직원 임금 동결(1월~)</li> <li>○ 중앙회 정원 10% 감축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림경영지도사업 평가</li> <li>○ 시스템 구축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중앙회 정원 5% 추가 감축(12월)</li> <li>○ 부실조합 구조조정 완료(12월)</li> <li>○ 부실우려조합 경영개선 완료(12월)</li> </ul>

## 나 공공기관 선진화

### ◇ 공공기관별 경영효율성 10% 이상 향상

- 기능조정, 인적쇄신 및 조직개편을 통해 생산성 제고

### □ (한국농촌공사) 농어촌 생산기반 및 농어촌 개발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동시에 경영의 자립기반 확충

- 수리시설 유지관리, 농지은행 등 고유기능 사업에 집중하고 그린에너지 개발, 어촌개발 등 신규 정책사업 개발로 성장 추진
  - 지하수 개발 등 민간수행 가능사업은 축소

- 인력 15%(정원 5,812명중 844명)를 감축하고, 부서조직 20%를 축소하며, 상시 퇴출프로그램(정원의 3%) 운영
  - 금년도 임금인상분 2.5%(49억원) 전액을 반납하여 이를 구조조정 대상자의 위로금 재원으로 활용

- 구조조정 계획 수립 시부터 노사협의회 운영 및 기관장의 노조방문 설명 등을 통해 노사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구축
  - 노사협의회(8차) 운영으로 노조와의 합의도출(12.18일 조합원 투표결과 78% 찬성)

- 민간과 기능이 경합되는 자회사 (주)농지개량은 매각추진
  - '09.8월까지 매각을 추진하고, 매각이 어려울 경우 청산

- \* (주)농지개량은 콘크리트 수로관을 주로 생산·판매하는 기업으로 정원 48명, 자산 70억원, 매출액 40억원 규모임

□ (한국마사회) 생활승마 활성화와 이익금의 사회 환원 확대

- 민간 승마전문 교관 양성, 무료 승마체험 지원 등을 확대하고, 이익금의 사회 환원 확대를 통해 공익기능 기여
  - 정부재정에 기여하는 특별적립금 적립비율을 60%에서 70%로 확대 (향후 5년간 800억원의 추가 출연으로 총 5,600억원 기여)
  - 농어촌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익기부금 지원규모를 매년 10% 확대(향후 5년간 130억원이 증가된 총 650억원 규모)
- 인력 13%(108명) 감축 및 지원조직 30%(3실 6팀) 축소 추진

□ (농수산물유통공사) 농식품 수출 100억불 달성 및 한식세계화의 전진 기지화

- 지원부서 및 사업부서 15% 축소를 통해 한식세계화 전담 부서 신설(식품산업처 및 한식세계화팀 등 4팀, 38명)
  - 또한, 수출농어업인과 농수산물 수출업체와의 현장밀착형 지원을 위한 「특별대책본부(50명)」 신설·운영
- 인력 10%(64명) 감축과 삼진아웃 방식의 역량강화단(5%)을 운영하고, 해외 소규모 지사 2개 폐지(현재 11개소)

□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인력 15%(12명) 감축,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임금피크제 도입 및 연봉제 적용 확대 등 추진

	1/4 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 천 계 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영효율화 세부계획 확정 및 조직개편·인력감축</li> <li>○ 농지개량의 매각에 대해 이사회 의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부계획에 따라 중단기 과제 실행</li> <li>○ 매각공고, 예비실사 및 예정가격 결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추진실적 점검·평가 및 차년도 이행계획 수립</li> <li>○ 인수제안서 접수·심사 및 본 계약 협상·체결</li> </ul>

## 2

# 농식품 R&D 개편 및 녹색성장 지원

## 가 농수산 과학기술 R&D의 효율화

◇ 기관간 중복투자 해소 및 생산기술 위주 연구를 유통·식품 중심 연구로 전환, 농어업 기술경쟁력 확보 및 고부가가치화

### □ R&D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및 평가체계 개편

○ 중복투자 해소, 정책과 R&D의 연계강화 등을 위해 「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위원회」 설치·운영

\* 농식품부, 농진청, 산림청의 R&D 중점 투자방향 및 기술 분야 등 설정

○ R&D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기구 운영  
- 연구기관의 자체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의한 평가로 전환

### □ 농림수산·식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관한 “종합 육성계획” 수립(‘09.6월)

○ 수출상품 개발, 생산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·대체 등 시장의 수요를 반영한 연구과제 발굴 및 개발에 집중

\* 「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육성법」 제정 추진 중(국회 제출, ‘08.11월)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설치·운영 - 중점 지원분야, 재원 배분방향 설정 등	○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종합 육성계획 수립(6월)	○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하위규정 제정(8월) ○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

## 나 농수산·식품 지역 연구기관 활성화

◇ 기초 지자체 단위로 중복 설치되어 있는 연구기관의 통합·조정을 통해 품목별 특성화된 연구기관으로 개편

□ 농수산·식품 부문 시·군 기초단위 연구기관은 지역특화시험장, 지자체연구소 등 45개 기관에 310명의 연구 인력을 보유

○ 농어업인 현장활용기술, 애로기술, 상품화 기술개발·보급 담당

\* 농진청 지원 지역특화시험장 33개, 지경부 지원 지자체 연구소 12개

○ 기초 연구기관과 중앙·광역 연구기관 간 조정·협력체계 미흡 및 연구인프라 취약, 생산중심 연구로 상품가공·활용 연구 부족

\* 특화시험장 : 평균 연구인력 7명, 평균 연구예산 9.7억원(인건비 포함)

□ 현행 45개 기초단위 연구기관을 성장유망 상품 중심의 「지역 특산품 전문기관」으로 육성

○ “1상품 1연구기관”을 원칙으로 연구 성과·역량 분석 등을 통해 기능 중복·중첩 기관의 통합 또는 품목별 전문화 추진

\* 순창 장류연구소(장류매출 3천억 원), 고양 선인장연구소(선인장수출 3백만 불), 논산 딸기시험장(품종개발로 로열티 72억 절감) 등 우수 연구기관 벤치마킹

\* 기능조정 검토대상 28개소 : 중복설치 22개, 품목 불특정 6개

- (예) 인삼 관련 국가지원 연구기관 5개(금산 2개, 풍기 1개, 진안 2개)

○ 기관별 ‘글로벌 시장 1등 상품 만들기’를 목표로 기술개발 로드맵, 성과평가 등 관리체계를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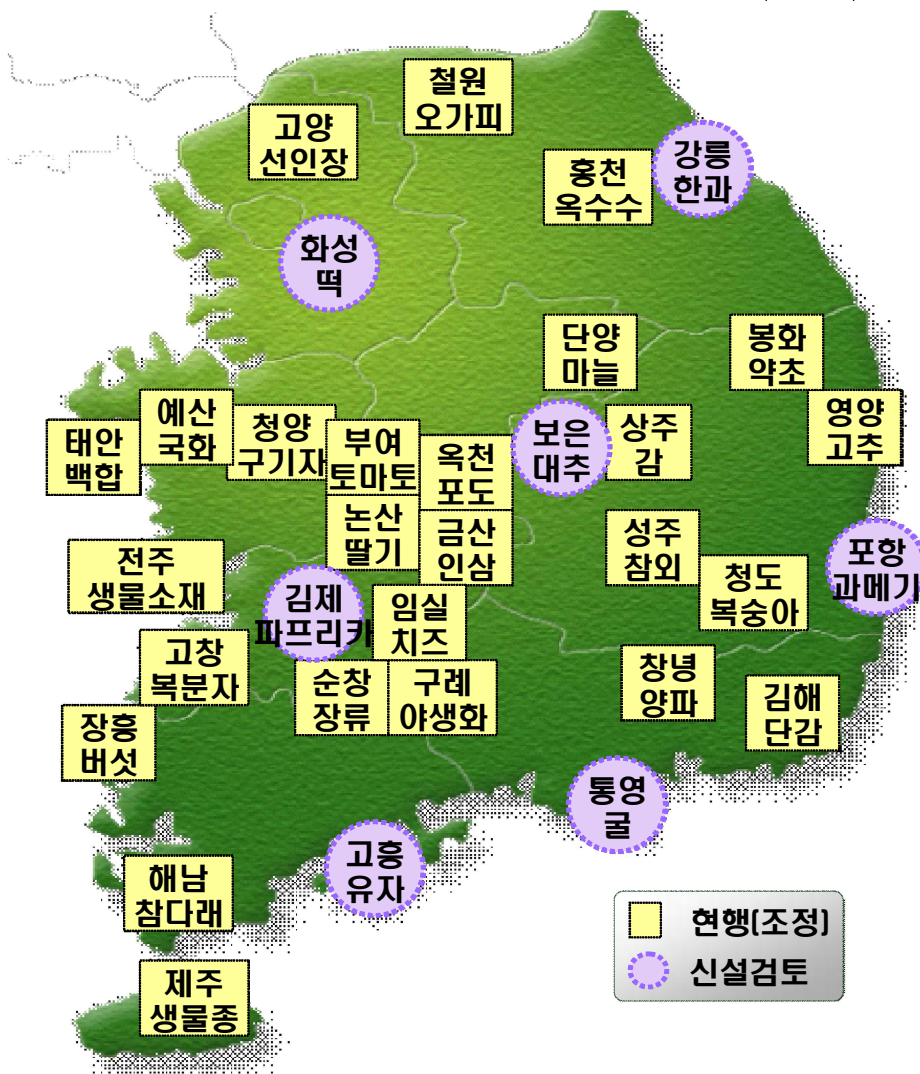
□ 연구기관별 지역 특산품 연구인력·예산지원 확대 추진

○ 인턴채용, 해외 우수인력활용 지원 등 연구인력 Pool 보장, 특성화 연구비 지원규모 확대 추진

\* 특성화 연구예산(년, 억원) : ('08) 73 → ('09) 120 → ('10) 250

\* 기관별 평균 연구인력 : (현행) 7명 → (개선) 12명 이상

<지역 연구기관 중장기 재조정 검토(예시)>

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 연구기관 성과·역량 분석 실시(3월) - 통합·조정 원칙 설정	○ 지역단위 연구기관 특성화 계획 수립(6월) - 통합·조정안 마련	○ 지역특성화 연구기관별 기술개발로드맵 수립(12월)

## 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

◇ 농식품산업을 저탄소·환경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발전

- 바이오매스산업 기술개발 확대 및 녹색공간 조성

□ 바이오매스 에너지 기술 산업을 육성하여 에너지 비용절감

- 펠릿 등 목재 바이오 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목질바이오 에너지 기술 개발(칩·펠릿 규격 표준화, 바이오에탄올 등 수송연료 기술)
- 해조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 실용화 기술 개발 연구
- 가축분뇨에서 추출된 메탄가스 등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타운 조성방안 타당성 연구('09)

□ 저탄소형 농어업을 확산시켜 탄소흡수 확대 및 배출 축소

- 산림조성 확대, 바다숲 조성 등을 통해 탄소흡수 능력 제고
  - \* 조림 및 숲가꾸기 예산 : ('08) 3,194 억원 → ('09) 3,787
- 광역친환경농업단지(11개소),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('09~'11) 설치 등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
  - \* 친환경 농산물 생산 비중 : ('08) 11% → ('09) 12
-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(20개소) 설치 등 확대(754억원)
  - \* 가축분뇨 해양투기 감소 : ('08)170만 톤 → ('09)120 → ('10)70 → ('11)40 → ('12)0
- LED집어등, 지열히트펌프 등 에너지 절약 기술 현장적용 확대
  - \* 에너지 절감형 집어등(13억원) 및 유류절감장치(42억원) 지원
- 식량·사료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하여 제2녹색혁명 추진
  - 겨울철 유희농지를 이용, 사료작물(153천ha)과 유채(1,350ha) 재배



□ 선진 산림녹화기술 전수를 위한 '아시아 산림협력기구(AFoCO)' 창설을 주도

○ 우리나라 주도의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으로 국가브랜드 위상을 제고하고 동아시아 그린허브화 추진

□ 농산어촌마을의 친환경적 개발 및 녹색 식생활문화를 형성

○ 마을정비 시 경관 보전, 녹지 확보 및 마을숲 조성 등 추진  
- 전원형 주택(단독 또는 복층),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병행

\* 농어촌뉴타운, 전원마을조성 시 친환경주택단지 시범지구 추진

○ 수송·가공과정의 CO<sub>2</sub> 저감을 위한 녹색 먹을거리 운동 확산

- 민간주도 로컬푸드·슬로우푸드 운동, 푸드 마일리지 표시 활성화  
- '싱싱회' 브랜드 홍보 강화 및 가공공장·판매장 시설 지원, 소비 촉진

\* 싱싱회 소비율 : ('07) 0.3% → ('10) 1.7 → ('12) 5

□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적지 북상, 한류성 어류 감소 대응

○ 지역별 대체 작물 개발, 작부체계 개편 및 온대성 어류(오징어, 조기 등) 조업 확대 등 추진

※ 「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성장 종합대책」 수립('09.2)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바이오매스종합 활용 계획 수립(3월)</li> <li>○ 녹색 식생활 지침 개발 연구용역 착수(3월)</li> <li>○ 농림수산식품 분야 녹색 성장 종합대책(2월)</li> <li>○ 사막화방지협약 총회 유치 계획 수립(2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녹색 식생활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(4월)</li> <li>○ 제 2녹색혁명 관련 농·축 협관계자 교육 실시(6월)</li> <li>○ 한·ASEAN 특별정상 회의시 AFoCO 창설 정상선언 추진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바이오매스타운 조성 방안 연구용역 완료(7월)</li> <li>○ 바이오매스타운 조성 시행계획 수립(12월)</li> <li>○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추진 기획단 설립(8월)</li> <li>○ '10년도 사료작물 파종 확대 (사료작물 170천ha)(11월)</li> </ul>

## 라 산림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

### ◇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확대로 농산촌 탄소순환경제 활성화

#### □ 속성수인 백합나무 등 바이오순환림 집중 조림

○ 탄소흡수 기능이 저하된 리기다소나무림은 '13년까지 대상지 137천ha 중 50%를 수종 갱신(백합나무로 전환)

\* 바이오순환림 조성(누적) : ('09) 6천ha → ('13) 50천ha

○ 산림부산물을 난방, 건축자재 등에 이용하는 탄소순환마을 조성  
- '09년 연구용역을 통해 모델 정립 후, '12년까지 24개소 조성

○ 펠릿·화목보일러를 학교, 산촌마을, 자연휴양림에 중점 보급

\* 펠릿·화목보일러 : ('08) 774대 → ('09) 5,000

#### □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사전준비 및 시범사업 추진

○ 개성지역 등을 조림CDM 대상지로 선정, 타당성 분석('09.6)

○ 북한 산림복구 표준매뉴얼을 보급하여 양묘장 조성, 조림, 산림병해충 방제 등과 관련한 체계적 사업추진 지원

\* 양묘장 조성(30억원), 조림(13억원), 병해충 방제(20억원) 등 추진

실 천 계 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펠릿·화목보일러 보급(1월) ○바이오순환림 조성(3월)	○탄소순환마을 연구용역(6월) ○북한 조림 타당성 분석(6월)	○북한산림협력사업 표준 매뉴얼 작성·배포(12월) ○탄소순환마을 대상지 선정(12월)

## 마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

### ◇ 구조조정, 규모화를 통한 자립어업 경영기반확보

- 친환경 수산물 생산체제 마련 등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

### □ 연근해 어업의 경제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구조조정 추진

- 자원남획이 큰 어선을 '10년까지 710척 감척, 산란·서식지 보호
- 연안어업은 낚시어업 중심, 근해어업은 그물어업 중심으로 재편

### □ 산란·서식장인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여 연안생태계 복원

- 인공어초, 종묘방류, 바다목장 확대를 통해 수산자원회복
- 자율관리어업을 마을어업 단위에서 만(灣)중심의 어선어업 단위로 광역화하여 자원관리의 기본 틀 정착('12년까지 1,300개소)

### □ 양식어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강화

- 우량 종묘 선발 육종,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개발 및 질병 예방용 백신 개발 등 양식어업 지원기술 개발 주력
- 어류양식을 외해로 확장, 참치 등 고가어종 전략적 양식 시도
-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(넙치, 전복, 김 등), 시장변화에 탄력 대응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바다숲 조성계획 수립(3월)	○근해어업 구조조정(~6월) ○바다숲 조성 외해양식추진(6월)	○자율관리어업의 확대 (~12월)

### 3

## 직불제 개편

### 가 쌀 직불제도 개선

◇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제도로 정착되도록 철저한 제도개선 추진

\* '08.10.7일 국회에 제출한 쌀소득법률 개정안에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및 국정조사 결과 등을 고려, 국회 심의 시 반영 추진

#### □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대폭 강화

-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를 지급대상자로 규정하되, 도시 거주자는 엄격히 심사한 후 인정
- 농업 외에서 일정 금액이상 소득이 있는 자와 신규로 진입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(단, 후계농 등 예외 인정)
- 대규모 기업농에게 직불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급상한 설정

#### □ 실경작 확인 강화 및 부당수령 소지 사전 차단

- 현재의 주소지 신청방식을 농지소재지 신청방식으로 변경하고, 관외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경작사실을 소명토록 강화
- 부당수령자는 부당이득금 징수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,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부당수령·신청자 적발 활성화

#### □ 쌀 직불금 신청·수령자의 정보 공개로 집행의 투명성 제고

- 공개범위 : 성명, 대상농지 지번 및 직불금 신청면적·수령액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장점검 및 교육 홍보(연중)</li> <li>○ 쌀소득법·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09년 사업시행지침 마련(5월)</li> <li>○ 쌀직불금 등록신청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행점검기관 현지실사(9~11월)</li> <li>○ 쌀(고정)직불금 지급(11월)</li> </ul>

## 나 직불제 내실화

◇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,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시행 준비 철저

- 농어업·농어촌 환경보전 등 공익적 성격의 직불제 확충
  - 친환경·안전 축산물 직불제(10억원) 및 친환경 부표보급 지원제 신규 도입(16억원)
  -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면적 확대 : ('08) 3,252ha/26억원 → ('09) 12,500/96
-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 있게 확대·개편,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화 지원
  - 은퇴시점부터 75세까지 최장 10년간 지급(현행 70세 까지)
  - 매도·임대 이양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(1ha당 25만원/월)
    - \* 대상농지 확대(진흥지역내 논 → 진흥지역내 논·밭·과수원)
-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소득이 일정비율 이상 하락 시 그 격차의 일부를 보전하는 「농가단위 소득안정제」 기본계획 마련
  - 농가의 영농면적, 재배품목 등 농가경영정보 등록('08~'09)
  - '10~'11년 시범사업을 거쳐 '12년 본 사업 추진
    - 품목별 직불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축산·과수 위주로 우선 도입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경영이양직불제 확대시행(1월)</li> <li>○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(1월)</li> <li>○ 환경친화적 부표 지급 보전제 도입(1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가단위소득안정제 관련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(6월)</li> <li>○ 농가단위소득안정제 기본 계획안 마련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가경영정보 등록 완료</li> <li>○ '10년 시범사업 준비</li> </ul>

## 4

## 유통구조 개혁

### 가 시군 유통회사 설립 가속화

◇ 기업적 경영방식과 전문경영체제를 갖추고 시·군 단위 이상으로 규모화된 농수산물 판매전문회사 설립

- 사업 초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, 성과평가 후 확대하여 읍·면단위 산지조직을 시·군단위로 통합·광역화

□ '08.12월 중 '09년 사업대상자 6개소를 선정하되, 추가로 4개 시·군을 선발

- '09년 사업대상 6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자금(6.6억원) 및 원물 확보자금(30억원) 지원

- 법인설립 및 CEO선정 지원,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, 대량 소비처와의 직거래 알선 등을 통한 조기 경영안정 도모

- 추가 4개소는 초기 사업기반 구축에 필요한 컨설팅 및 원물 확보자금 지원을 통해 예비 육성

□ 농협법을 개정, 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조합 연합체) 제도를 개선하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촉진

- CEO 공모, 외부출자 허용 등 기본요건을 갖출 경우 시군 유통회사로 발전 유도 및 지원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세부 사업계획 수립(3월) ○법률·회계 컨설팅 실시(3월)	○법인설립 등기 및 자금배정(4월) ○사업대상자 워크샵 개최(6월)	○'10년 사업대상자 선정(12월) ○'09년 추진실적 평가(12월)

## 나 직거래 활성화

### ◇ 소비자 부담 경감 및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를 위해 직거래 확대

-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운영 효율화 추진

### □ 유통·식품·외식업체와 생협 등 소비지 단체에 산지조직과의 직거래 매입자금 융자 지원('09 : 2,063억원)

- 소비지-산지조직간 MOU 체결 등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유도

\* '12년까지 지원대상 소비지업체의 직거래 비율을 30%로 제고('07 : 19%)

- 생산자·소비자 공동브랜드(MPB: Manufacturing Private Brand) 사용, 결제기간 단축 등 공정거래 정책과 연계하여 지원

### □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설립('09.1)

- B2B 분야 사이버거래 인프라를 구축하고, 급식·가공 등 대량 거래처 유치에 위해 시행 초기단계 구매자금 결제 등 지원

- 거래소 인증 등을 통해 판로확보와 신뢰구축에 애로가 있는 친환경·명품 농산물에 특화된 B2C 거래 추진

- 기존의 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(B2B), 인터넷수산시장(B2C)의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, B2B 부분은 단계적으로 농산물과 통합

□ 직거래 장터 활성화 및 생산자단체 직접판매시설 확충

- 기존 정례 운영 장터의 품목·일수를 늘리고, 농협 지역본부 16개소('08 : 5개소), 아파트 단지 등 상설 장터 신규 개설
  - 농협 소비지 중대형 매장을 350개소로 확충('08 : 200개소)
- 수산물 산지 위판장 및 직매장 시설을 확충('09 : 21개소)하고, 인천과 노량진에 대규모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

□ 소매단계 유통비용이 높은 축산물 직거래 대폭 강화

- 축산물 플라자(식육식당+판매점), 브랜드육 타운 등 생산자 단체의 축산물 전문 판매시설 확충
  - \* 생산자단체 직판시설의 한우 소매가격이 대형마트 대비 26% 저렴('07 조사)
- 축산물 이동판매차량을 확대('08: 8대 → '09: 100)하여 직거래 장터, 수도권 인구밀집지역 등에서 특판 실시

□ 가락동 도매시장을 친환경적으로 개발, 유통비용 절감과 세계 명소화 추진

- 저온저장고·하역기계화 시설 확충, 직간접 편익 연간 470억원 예상
- 도매시설 이외 생활 편의시설이 조화된 복합공간으로 발전
  - \* '09 도매시장 정비 : 서울 가락·노량진, 광주 각화, 대전 오정 등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거래장터 개설(연중)</li> <li>○ 사이버거래소 설립(1월)</li> <li>○ 이동판매차량 도입(2월)</li> <li>○ 농식품 소비자산지 협력사업 대상자 선정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직거래장터 개설(계속)</li> <li>○ 사이버거래소 대량 거래처 유치·확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브랜드육 타운 2개소 조성(11월)</li> <li>○ 인천 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준공(12월)</li> </ul>



## 5

## 농식품 수출 확대

- ◇ '09년 농수산물식품 수출 53억불(전년대비 8억불 증가) 달성
- 식재료 수출 및 공격적 마케팅 확대를 통한 신규 수요 창출
    - \* 예산 : ('08) 5,133억원 → ('09) 5,471
  - ※ 수출목표 : ('08) 45억불 → ('09) 53 → ('12) 100

□ 해외 대형 급식소를 대상으로 국산 식재료 수출 본격 추진

- 실태조사 후 5월까지 DB 구축, 식재료 수출 관련 정보 제공
  - \* 7천여 해외진출 기업(150만 명 종사), 병원·학교 및 1만여 해외 한식당 대상 공략
- 식재료 수출전문업체 육성, 식재료 개발 및 해외 마케팅 지원
  - \* '09년 해외시장개척사업비(15억원) 등 수출지원사업 활용

□ 해외 소비자·바이어 대상 마케팅을 상반기에 집중하여 해외 수요를 조기에 창출

- \* '09년 해외시장개척사업비 259억원을 상반기에 60% 집행
- 수출 증대효과가 큰 박람회,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등을 상반기에 집중 개최
  - 박람회 및 해외 판촉전 비중 확대 : ('08) 43% → ('09) 60%이상
  - \* 상반기 중 일본·중국·동남아를 중심으로 박람회 15회(총27회)·판촉전 35회(55회) 개최
- 해외 30여개 재외공관 연계 홍보행사를 유력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회로 활용

□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는 공세적 대외 협력 전개

- 검역·잔류농약 허용기준 등 수출현장의 애로요인을 수렴하여 대외협상에 적극 반영

□ '12년 100억불 수출 실현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 마련

- 간척지·집단화된 농지 등을 활용한 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 조성
  - 즉시 활용 가능한 간척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를 부지로 활용
  - \* 하반기 기반공사 개시('10년 완료)를 목표로 공사채 발행 등 실행방안 마련
- 계열화 수출선도조직 육성('10년까지 50개소), 수출업체 조직화·규모화
  - 해외시장개척사업비 및 수출물류비 각각 추가 지원(50%, 15% 증)
- 1억불 이상 수출품목(15개) 집중 육성('12년 전체 수출액의 57%)
  - ※ 김치, 인삼, 파프리카, 돼지고기, 배, 면류, 주류, 과자류, 참치, 오징어, 김 등
  - \* 김치 : 중국 고소득층 대상 마케팅('07년 0.7억불 → '12년 1.5)
  - \* 인삼 : '09년 CODEX 등록 활용, 중국·동남아 시장 개척('07년 0.9 → '12년 2)
  - \* 파프리카 : 유리온실단지 조성 및 수출업체 조직화('07년 0.5 → '12년 1)

□ 가공식품업 지원확대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수출

- 검역문제 해소를 통한 돈육 수출촉진을 위해 돼지고기 열처리 가공공장을 12월까지 2개소 설립 지원(140억원 용자)
-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조성(감천항 일원, '09~'12 : 총 1,250억원 투자)으로 수산가공식품 수출 기반 확충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'09 수출확대 대책 수립(1월)</li> <li>○수출선도조직 13개 선정(1월)</li> <li>○수출지원사업 사업자 공모(1월)·선정(2월)</li> <li>○수출전문단지 기본구상안 수립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식재료 수출을 위한 해외 대형 급식소 DB 구축(5월)</li> <li>○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 조성 세부계획 수립(6월)</li> <li>○박람회 15회 판촉전 35회(1~6월)</li> <li>○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 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수출전문 유리온실단지 기반공사(9월)</li> <li>○수출선도조직 추가 선정(11월)</li> <li>○박람회 11회, 판촉전 20회 (7~12월)</li> </ul>

6

해외 농림어업 개발 및 자원 확보

가 해외농업개발

- ◇ 해외농업개발을 통해, 식량·사료자원의 안정적 해외 공급망 확보
  - 민간주도로 추진, 정부는 외교·기술·금융 등 측면지원

□ 법적근거 및 지원체계(협력단) 마련, 전문가인력풀 구성, 현지 조사 등 '08년 구축된 기반을 토대로 '09년 사업 본격 추진

- 해외 현지 건조·유통시설, 농기계 구입비용 등 용자 지원
  - 내년 1/4분기에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
  - \* 해외농업개발 사업 지원 예산('09) : 240억원(용자 210, 보조 30)

- 국가별 맞춤형 지원팀 구성, 현지조사 및 기술·정보 제공
- 중앙아 4개국 등 농업자원부국과 협력약정(MOU) 체결 확대
  - \* 카자흐스탄, 우즈벡, 아제르바이잔, 투르크메니스탄,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

□ 기업 수요를 고려, 맞춤형 기술개발 전략 마련 및 사업 추진

- '09년 5개국 10과제 해외농업 기술개발 시범사업 선정 수행
  - 대상지역에 적합한 품종 및 농업생산기술 개발 모색
  - \* 대상지역·분야 : 동남아(옥수수·콩·원예·바이오에너지작물), CIS(밀·원예), 아프리카(기술협력), 남미(바이오에너지작물) 등

□ 해외농업개발 추진체계, 전략, 지원시스템 및 연차계획 등을 포괄하는 「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」수립(3월)

실 천 계 획	1/4 분기	2/4분기	하반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농업개발사업 사업자 공고(2월)</li> <li>○ 해외농업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농업개발사업 사업자 선정(4월)</li> <li>○ 중앙아 4개국 MOU 체결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맞춤형 기술개발사업 추진(12월)</li> </ul>

## 나 해외수산자원 개발

### ◇ 원양산업 육성으로 안정적인 수산식량자원 확보

\* 30개 연안국에 387척의 원양어선이 진출하여 연간 어획물 약 70만 톤 생산

### □ 해외 신어장 개발 및 연안국과의 협력강화로 수산자원 확보

- 공해(公海) 2개 수역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조사 실시(18억원)
- 원양어선이 입어하는 주요 연안국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(4억원)
- 국제 지역수산관리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쿼터 확보
  - 지속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해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(WCPFC) 참치자원 관리프로그램 참여(10억원, '09~'13)

### □ 원양산업 관련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

- 경영비 절감을 위해 원양어업관련회사 운영 지원(50억원)
  - \* 원양어업관련회사 : 원양선사가 어획한 수산물을 수집, 가공·판매 담당
-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지원 및 설비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
  - 노후어선 대체(선망 1척, 24억원), 설비 현대화(1척, 10억원)
- 원양어업경영자금 등 저리 운영자금 지원(2,200억원)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 천 계 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노후원양어선 대체사업 사업자 선정 및 융자금 교부 결정(1월)</li> <li>○원양어업경영자금 지원 (수시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원양어업관리회사 지원 (5월)</li> <li>○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참치자원관리프로그램 지원(5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2개 공해수역 자원조사 실시(9월)</li> <li>○연안국에 물자공여(7월)</li> </ul>

## 다 해외산림자원 개발

### ◇ 해외산림자원 개발로 목재 공급체계 원활화

\* 해외조림지 2만ha 확대(4백만m³의 원목생산 기반 확대(기간 : 7년))

#### □ 다각적인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사업 확대 추진

- 현재 16만ha 규모인 해외조림지를 '09년 2만ha 추가 확보하고 기후변화·고유가에 대응하는 탄소배출권·바이오조림 비율 확대
  - 개도국을 대상으로 황사 및 사막화방지사업 등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고, 미개척 산림부국과의 자원외교 확대
    - 사막화방지 : 몽골 그린벨트('07~'16), 중국 내몽고 조림('01~'10)
    - 열대림 복구 :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조림('08~'10)
- \* 양자협력 체결('09) : 중남미 진출을 위한 파라과이 등 2개국 추가(기존 10개국)

#### □ 산림협력사업 추진으로 동아시아 산림사업 중심국가로 도약

- 동아시아 지역의 산림환경 증진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
  - 사막화방지 조림 : 몽골('07~'16, 3천ha), 중국 내몽고('06~'10, 1천ha)
  - 열대림 복구 :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조림('08~'10, 150ha)
- 탄소배출권 조림 시범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
  - 한-인니 탄소배출권 사업 추진('08~'13, 칼리만탄 등 300ha)
- 사막화방지협약(UNCCD) 제10차 총회 유치로 세계수준의 산림녹화 기술 전파 및 전문인력 양성 계기 2마련

실 천 계 획	1/4 분기	2/4분기	하반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파라과이와 양자협력 관계 수립</li> <li>○해외조림 사업비 용자 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한-인니 산림포럼 개최</li> <li>○해외조림 투자세미나 개최</li> <li>○사막화방지협약 총회 유치 결정 및 준비 기획단 발족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조림 2만ha 확대 완료</li> <li>○ 베트남 투자환경조사 실시</li> <li>○ 해외조림 및 개도국 산림환경증진사업 점검·평가</li> </ul>

◇ 식재료 가공을 통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, 식품산업이 수출산업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확충

\* 식품산업 매출액 확대 : ('06) 100조원 → ('09) 120 → ('12) 150

### □ 김치 등 대표적 전통발효식품의 명품화 지원

- 발효조절기술 등을 연구할 세계김치연구소 설립(10년 완공 목표)
  - \* 세계 절임류 식품 전문가를 규합하는 '세계김치 협회' 설립 지원
- 발효 식품 기초 재료인 천일염의 위생적인 생산인프라 구축
  - 소금창고·산지종합처리장 등 시설자금 지원(33억원) 및 「천일염산업 육성법」 제정 추진
- 고추장, 된장, 간장, 전통주, 젓갈류의 현대화·산업화 촉진
  - \* 전통식품업체 시설·포장 등 개선 지원(116억원), 젓갈류 가공시설 확충 지원(20)

### □ 한식 세계화 및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해 대내외 수요 확대

- 한식 콘텐츠 개발·보급, 한식당 고급화 등 세계화 인프라 구축 (36억원) 및 국내외 한식 체험·홍보(31억원) 등 집중 추진
  - 한식전문교육기관 지정(3월) 및 인력 양성 지원(13억원)
- 한식당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초기 정착자금 지원(20억원)
  - \* 해외 한식당 인증제 모델을 개발(6월) 후 시범 도입(하반기)
-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·체험, 지침 개발·보급 등 추진(15억원)
  - \* 전통 식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 식생활 개선 운동 전개

### □ 가공 식재료 수요증가 추세에 맞춰 농수산물의 식재료 가공 확대

- 중앙 집중식 공동조리시설 등의 식재료 가공시설 확충
  - \* ('09년) 3개소 선정(3월), 시설자금 등 지원(72억원) → ('12) 18개소

□ 국가 식품클러스터를 전북에 조성('12년 완공 목표)

- 식품기업·연구소 유치를 위한 국내외 투자활동 전개(투자설명회 10회)
  - 100여개 국내외 식품기업, 10여개 식품연구소 집적 추진
- 산·학·연·관 네트워크 구축, 전문인력 양성(식품특성화 대학 육성 : '10년 지정), 기업지원 서비스, 세제 지원 등 추진
- 농식품부내 '국가 식품클러스터 추진단'을 구성(3월)하여 세부 실행계획 수립(9월) 및 국가 산업단지 지정 추진(10월)

□ 지역의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확대 지원

- 시·도 또는 복수 시·군의 광역 클러스터 조성 지원(신규 10개소, 50억원)
- 농어가 참여형(지분) 농식품 기업(2개소)에 대한 창업·시설·운영자금 융자지원(100억원)
  - \* 생산자와 외식업체 공동 투자 외식업(Fruits Cafe 등)도 지원 검토

□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공용 쌀 할인공급 및 수요 확대 추진

- 공공비축 재고·MMA쌀 할인공급으로 가공업체 부담 경감
  - \* 공공비축쌀 공급(일반쌀 가격의 70%) : ('09) 20천 톤 → ('10) 35 → ('12) 100
  - \* MMA 수입쌀 공급(밀가루 가격 수준) : ('08) 4천 톤(355원/kg) → ('09) 10(355)
- 지자체·교육청 등과 연계, 쌀국수 등 시식회·학교급식 메뉴화 지원
  - 중국·일본 등 국가별 시장 분석, 유망품목 발굴(떡볶이 등) 및 지원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쌀면용 수입쌀 할인공급 사업 평가 및 계획수립(1월)</li> <li>○ 공공비축쌀 가공용 공급(2월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급방식·가격 확정(1월)</li> </ul> </li> <li>○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구성(3월)</li> <li>○ 광역클러스터 대상 선정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김치연구소 설립 기본계획 수립(6월)</li> <li>○ 쌀 가공식품 기술혁신 연구회 개최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해외 한식당 인증제 도입(10월)</li> <li>○ 국가식품클러스터 국가 산업단지 지정(10월)</li> <li>○ 쌀가공식품 수출활성화 방안 수립(11월)</li> <li>○ 전통식생활 지침 개발보급(12월)</li> </ul>

## 가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

◇ 「농어장에서 식탁까지」, 「국경에서 가정까지」 선진국 수준의 농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'09년 6,085억원 투입

- 농축수산물의 생산·유통단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
- 정책결정과정에 소비자 참여 확대 및 소통·투명성 강화

□ GAP(우수농산물관리제도), HACCP 등 선진 안전관리시스템 확대 및 안전성 검사 강화로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

○ (농산물) GAP 생산비중 확대('08 : 2% → '09 : 3)를 위해 분석·검사비, 위생시설 보완 등을 연중 지원(51억원)

- 안전성 정밀검사 확대 : ('08) 46천 건 → ('09) 52(13%증)

○ (축산물) 도축·가공업체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HACCP 등 시설 개선 자금을 연중 지원(600억원)

- 항생물질 종류 감축·사용통제 및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두수 준수 지도

○ (수산물) 유해물질의 유통 차단을 위한 안전성 검사 강화

- 양식장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확대 : ('08) 6,500건 → ('09) 7,300

- 수산물 위생약정국 현지위생점검 강화 : ('08) 60개소 → ('09) 70

□ 식품제조업체, 신선편이농산물 가공업체 등의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개선 자금(460억원)을 상반기 조기 집행



□ 이력추적제 확대 시행 등을 통한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

○ 공영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

\*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'09.1.1부터 시행

○ 국내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전면적으로 시행('09.6)하고, '09.7월 이후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해서는 도축 금지

○ 수입산 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에 필요한 거래기록 의무화('08.12) 및 전자적 방식의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추진('09~'10)

○ 수산시장 15개소의 시설개선(상반기 46억원, 하반기 10억원 투자)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 확립

- 넙치, 김 등 14개 수산물 대상 수산물 이력추적제 실시('08.8)

□ 민간 참여·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고, 농식품부내 안전관련 기능·조직 개편

○ 농·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, 축산물위생심의회 등에 소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, 도축장 평가, 원산지 표시 등에도 소비자 활동 강화

○ 수의과학검역원, 식물검역원,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검역·검사 기관을 통합,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

\* '08.11월 농식품부내 설치한 '농식품안전상담센터' 기능 활성화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GAP 인증기관 추가 지정(3월) - 39개소 → 41개소</li> <li>○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약사용 등 세부 관리 기준 개선(6월)</li> <li>○쇠고기 이력추적제 유통 단계 시행(6월)</li> <li>○위생약정국에 대한 점검 실시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GAP대상품목 확대 (10월) - 105개 품목 → 108개 품목</li> <li>○수산물안전성검사 종합평가 (11월)</li> <li>○수입쇠고기 유통경로 추적 시스템 시범사업 실시(11월)</li> </ul>

## 나 가축 질병 최소화

◇ 고병원성 AI의 재발방지, 해외 악성 가축질병의 국내 유입 방지 및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사전 방역추진

□ 능동적 사전예찰 중심의 「AI 상시방역체계」 구축·운영 중

- 재발위험이 높은 23개 시·군(농장)에 대한 임상예찰 매주 실시
- 오리 사육농가(종오리 84, 육용오리 1,586)에 대해 축사별·분기별 AI 검사
- 철새를 통한 AI 유입 여부 조기 파악을 위해 철새 도래지의 철새 분변(9,975점)과 야생조류 포획검사(1,500수) 실시
  - 철새 도래시기(10~11월) 및 통과시기(3~4월)에 집중 관리

□ 가축질병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방역 추진

- 구제역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기간(3~5월)에 집중검역
- 소 브루셀라병은 연 1회 이상 검사하고, 검사 증명서 미휴대 소의 거래 금지
- 돼지열병 예방백신 100% 공급, 혈청검사(210천두) 실시 후 면역형성률이 80% 미만 농가에 과태료 부과

\* 돼지열병 과태료 : 1차 위반(50만원), 2차(200), 3차(500)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국 오리농가 및 철새 AI 집중 검사(2~3월)</li> <li>○ 브루셀라 방역상황 분석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구제역 집중검역 추진(3~5월)</li> <li>○ 브루셀라 강화대책 검토(4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(7월)</li> <li>○ 집중관리지역 AI 검사강화(10~11월)</li> </ul>

## 가 농어업 생산비 절감

◇ 비료·사료·유류의 가격상승분 보조, 에너지·자원 절감기술 개발 및 보급 등으로 농어가경영비 절감

- 농자재 가격보조, 비용절감 기술개발 및 보급에 1.5조원 투입

□ 단기적인 사료, 비료, 유류 등의 가격안정지원으로 농어가부담 경감

○ (비료) 화학비료 가격상승분 국고보조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

\* 화학비료 가격지원 : ('08) 33만 톤/402억원 → ('09) 125/1,508

\* 유기질비료 : ('08) 200만 톤(추경 포함)/1,160억원 → ('09) 210/1,218

- 퇴·액비 유통조직 확대를 동시 지원하여 화학비료 감축 적극 유도

\* 퇴·액비 유통조직 : ('07) 13개소/148억원 → ('08) 20/320 ('17까지 2,951억원)

○ (사료) 원재료 할당관세 적용, 사료 부가세 영세율 및 구매자금 융자지원(1조원)을 통해 원가부담(연간 9,800억원 수준) 완화

\* 사료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(0~6%) : ('09) 17개 품목

\*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: '08말 → '11말

○ (유류) 농어업용 면세유류 실수요량의 차질 없는 공급

- 면세유 관리전산시스템 보완, 난방기 유종변경(경유 → 등유) 시험 등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병행

\* 면세유 공급한도량 증량 : ('08) 3,014천kl → ('09) 3,932

□ 에너지 및 자원 절감형 대체 농자재 개발 및 보급

○ (비료) 녹비작물 및 토양개량제 공급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 감축

- \* 녹비작물 종자대 : ('08) 79억원 → ('09) 135
- \* 토양개량제 공급 : ('08) 48만 톤/404억원 → ('09) 59/651

○ (농약) 생물적 병해충방제 개발 관련 제도개선 및 방제면적 확대로 농약 사용 절감 유도

- \* 미생물농약 : ('09신규) 8.4억원/1천ha → ('12) 25.2/3
- \* 천적방제 : ('09) 36.5억원/2.5천ha → ('12) 5,110/3.5

○ (조사료) 청보리 등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로 사료원료 수입 대체

- 동계 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단가 및 대상품목 확대 등 국산 조사료 생산·이용 활성화

- \*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: ('08) 414억원 → ('09) 819

※ 조사료 재배면적 : ('08) 191천ha → ('09) 234 → ('12) 370

- \* 한우·젖소 배합사료 구입비 8천억 원 수준 절감효과('08 : 242백억 원 → '12 : 159)

○ (유류) 고효율 난방기 및 보온장치 보급 확대

- \*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('09신규) : 260억원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 천 계 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대상자 선정(1월)</li> <li>○비료계정적자보전 집행(1월)</li> <li>○면세유 관리시스템보완(2월)</li> <li>○사료 관세·부가세 면세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미생물농약 및 천적방제비지원 사업 추진 및 집행완료(6월)</li> <li>○난방기 유종변경 시험실시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친환경 비료지원 등 예산 집행 완료</li> </ul>

## 나 에너지절감 R&D 강화

### ◇ 유류 등 화석에너지 절감기술의 현장실용성 강화

\* 에너지비용 절감 : ('09) '07대비 10% 향상 → ('12) 30(3,900억원 절감)

#### □ 유류사용이 가장 많은 시설원예(63%) 분야 현장 실증연구 강화

○ 작목별·시설별 종합 패키지화 연구 등 16개 과제, 31억원 투입

- 에너지절감 패키지(창원), 폐열회수온실(곡성) 등 전국 10개소

\* '09년부터 산학연 에너지절감 현장연구사업단(20명) 구성, 농가컨설팅

○ 우수기술 「베스트10」 선정, 농가보급을 위한 홍보·교육 강화

#### □ 지열, LED 등 신재생에너지의 농업적 활용기술 개발 확대

○ 지하공기 이용 열교환식 난방시스템 개발(제주 실증시험 2개소)

○ LED 광원을 활용한 작물재배 적용 연구 확대

- ('08) 국화 등 3작물 5개소 → ('09) 장미 등 9작물 16개소

\* LED 대체효과 : 전기에너지 70%절감, 생산량 및 품질 10~20%향상

#### □ 식량생산과 경합되지 않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조기개발

○ 갈대·억새 등 다년생 셀룰로스계 식물 이용, 바이오 에탄올 생산

○ 한·브라질 상호 「협력연구센터」 설치('09.3), 공동연구 추진

\* 브라질은 연간 17.8백만㎏를 생산하여 세계시장의 46% 점유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에너지이용진단 T/F구성(1월)</li> <li>○지하공기이용 히트펌프 시스템 설계 제작(2월)</li> <li>○에너지이용 실태분석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셀룰로스계 유전자원 수집(갈대 등 100종)(4월)</li> <li>○지하공기이용 히트펌프 현장실증(4월)</li> <li>○유전자원 셀룰로스 함량 및 특성 평가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매뉴얼작성 및 현장컨설팅(9월)</li> <li>○지하공기 히트펌프시스템 보급추진(10월)</li> <li>○셀룰로스계 바이오에탄올 전처리 공정 개발(11월)</li> </ul>

## 다 농기계 은행 활성화

### ◇ 농수산물기계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한 영농비용 절감

\* 임대사업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천억 원 지원 효과 거양

#### □ 논농사용 기계임대(농협 농기계은행)사업의 조기정착 유도

- 내년 상반기까지 중고농기계 매입(3천억 원)을 완료
- 사업 초기('08-'09년)에는 중고농기계 매각에 많은 농가가 참여 하도록 임대 중심으로 추진하되, 점차 농작업대행 비중 확대
- '10년부터 「무인헬기 공동방제」사업을 추가, 사업 영역 확대  
- '12년까지 무인헬기 200대 보급(무인헬기 1대 방제면적 : 50ha/일)

#### □ 밭농사용 기계임대센터 40개소를 추가 설치(200억원)하고, '12년 까지 시군당 2~3개소(350개소) 설치

\* 밭농사용 기계 임대센터 : ('08까지) 92개소 → ('12) 350개소(시·군당 2~3개)

#### □ 임업용 임업기계지원센터 1개소 추가 설치(現 7개소) 및 수산용 기계(양식장비) 임대사업 신규 추진

- 양식장비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하여 임대사업소 운영

\* 임대장비(예시) : 활어선, 자외선 살균기, 냉각기, 해상크레인 등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밭농사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승인(2월)</li> <li>○ 양식장비 임대사업자 선정(2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은행사업 지도 및 홍보(5~6월)</li> <li>○ 양식장비 임대사업 점검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실적 점검 및 평가 - 평가회 개최(12월)</li> </ul>

## 라 농가 경영회생 지원 확대

◇ 부채농가 등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지 외에 **농업용 시설**(축사, 유리온실 등)로 확대

\* 예산 : ('08) 1,195억원 → ('09) 1,450 (255 증액)

\* 경영회생지원으로 경영위기 농가의 연간 이자부담 10% 이상 절감 가능

□ '농지은행 농업용 시설매입 시행지침'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유리온실, 축사 등 농업용 시설 시범 매입 추진

○ 매입대상 확대 내용 등을 신속히 홍보(12월부터 지속)

□ 경영위기 농가의 신속 대응을 위해 지원신청 횟수 확대

○ 경영위기 발생 시기의 다양성을 감안, 지원 신청 시기를 연초 1회에서 분기별(연 4회)로 변경

□ 평균적이고 일률적인 부채대책에서 탈피하여 경영위기 사유 및 회생가능성 등을 종합평가, 적격대상자 선정·지원

○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(5~8년)하여 영농을 지속 하도록 하고, 환매자격도 부여

□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시장 안정, 농업구조개선 촉진 등을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·비축 방안 강구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사업 홍보 및 교육(1월)</li> <li>○사업 신청·평가(~2월)</li> <li>○농지매입·지원(~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사업신청·평가(4월)</li> <li>○농지매입·지원(~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사업신청·평가(7월, 10월)</li> <li>○농지매입·지원(~11월)</li> <li>○평가 및 제도개선(12월)</li> <li>○경영회생능력 제고 교육 등(12월)</li> </ul>

## 마 농어업 재해보험 통합

### ◇ 농어업 관련 재해보험 대상 및 보장범위 확대

- '11년까지 식량·채소·특용작물 등 30여개 주요 농작물 대상

### □ 과수 위주에서 식량·채소작물 등으로 보험대상 확대('08:15개 → '09:20)

#### ○ 내년에 「벼·마늘·고구마·옥수수·매실」 5개 농작물 추가

\* '08 : 15개 품목(사과·배·복숭아·포도·감·감귤·밤·참다래·자두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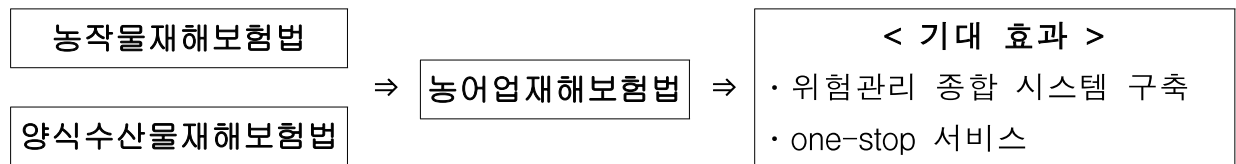
- 특히, 벼 재해보험 시범사업(전국 20개 시군 대상, 20억원) 도입으로 재해보험 수혜농가 대폭 확대

#### ○ 자연재해 위주에서 병충해, 야생동물 피해까지 보장범위 확대

### □ 농작물·가축·양식수산물·농어업용 시설물을 포괄하는 위험관리 종합시스템(all-risks 보장 방식) 구축

#### ○ 가축공제,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“농어업재해보험”으로 통합

\*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제출('08.11) 및 시행령·시행규칙 마련('09)

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○가축공제 축시특약의 손해 보상 추가 및 공제료 지원 상향(30 → 50%)(1월) ○대상품목 확대(3월) - 벼, 마늘 등 5개 품목	○벼 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 (4월)	○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·시행규칙 제·개정(12월) ○고구마, 매실, 마늘 등 시범사업 실시(7월)



## 바 농식품 수급 안정

- ◇ 농식품 물가상승률을 3% 이내로 유지하여 서민가계 안정 지원
  - 수매·비축물량의 탄력적 공급과 민간 자율 수급조절기능 강화

### □ 가격동향 지속 점검 및 가격 인상 우려 품목 선제 대응

-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 농식품 50개 중점 점검·관리
  - \* 농산물 10개, 축산물 4, 수산물 3, 가공식품 30, 외식비 3
- 원자재 가격 및 환율 상승에 따라 인상된 가공식품 가격은 인하요인 발생시 조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

### □ 공공비축미와 수매·비축 농수산물(14품목)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, 농수산물 수급안정 강화

- 할당·조정관세, 시장접근물량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, 가공식품 원자재 수급 원활화

### □ 계약재배와 자조금을 활용한 민간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

- 가격 등락이 심한 무·배추·오이, 사과·배 등 16개 품목은 연간 소비량의 3~20%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
  - \* 계약재배 예산('09) : 1조 720억원(정부 80%, 농협 20)
-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촉진 홍보로 농수산물 수요 확대
  - \* 자조금 지원예산('09) : 원예작물 27품목/85억원, 축산물 7/223

□ 농수산업 관측사업을 내실화하고 관측정보 제공을 체계화

- 농업관측센터의 농수산물 가격 전망(37 품목)을 일반인에게 제공
- 가격 등락이 큰 양념채소와 과일에 대한 **소비관측** 처음 시행
  - \* 소비관측 품목 : 양념채소 3(마늘, 양파, 대파), 과일 2(사과, 배)

□ 품목별로 종자부터 재배·사육, 유통, 최종 소비까지 단계별 소요 비용과 부가가치를 가치사슬(value chain)에 따라 분석

- 단계별 취약요소를 발굴, 생산성 향상 및 유통효율화 방안 마련
  - \* 한우 : 소매단계 유통비용 높음(소비자가격의 36.5%) → 생산자단체 직영판매 확대('08:10% → '12:25%) 등으로 '12년까지 유통비용 466천원/두(4.8%p) 절감

○ 생산액이 크거나 수출경쟁력이 있는 25개 품목을 대상

- \* (식량) 쌀, (채소·특작 7) 고추 버섯 배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인삼 (과수 6) 사과 배 감귤 포도 단감 백합 (축산 5) 한우 돼지 닭 계란 우유 (수산 6) 고등어 멸치 오징어 넙치 전복 김

□ 품목별 생산자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총괄할 수 있는 품목 대표조직 육성

- 감귤·넙치는 '08.12월 설립 완료, 돼지는 '09.1월 예정
- 품목별 자조금단체 또는 기존조직을 중심으로 대표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(사업대상자 선정권 부여 등)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비축사업 시행계획 수립(1월)</li> <li>○25개 품목 유통구조개선 대책 수립(2월)</li> <li>○원료 곡물 시장접근물량 확대 검토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산물 소비관측사업 시행(4월)</li> <li>○봄여름 채소, 과일 계약재배 계약 추진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가을·월동채소 계약재배 계약 추진(12월)</li> </ul>

## 10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

### 가 농어촌뉴타운 조성

◇ 도시의 30~40대 젊은 인력을 농어촌으로 유치하여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토록 주택, 교육, 기술 및 자금 종합 지원

□ 쾌적하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단지 조성(임대 또는 분양공급)

- 태양광, 풍력 등 신·재생에너지 활용으로 에너지절감 도모
- 기숙형 공립고 육성 등 자녀교육여건을 조성하고, 입주자 수요에 맞는 기술교육 및 자금 등 연계 지원

□ '09년부터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('09~'11, 700세대 규모)

○ 지역여건과 입주수요 감안, 50~300세대 규모의 단지조성

\* 시범사업비 1,148억원 : 국고 900억원(보조 396, 융자 504), 지방비 248

○ '09.1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시범사업 대상지 5개소 선정

○ '09.2월부터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설계 실시, '10년부터 기반 시설 조성 및 건축공사 시행

- '09년 말까지 토지이용계획변경, 사전환경성 검토, 산지·농지전용 등 관련법에 의한 협의, 인·허가 추진

□ 시범사업을 통해 성공모델 창출 후 '12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

○ 시·군 수요를 감안, 1단계로 '17년까지 53개소(6,300세대) 조성 추진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○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(1월)	○ 농어촌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(6월)	○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(12월) ○ 관계법령상 협의·인허가 추진(12월)

## 나 농어촌 생활인프라 확충

◇ 농어촌 정주체계(마을-읍·면)별 기초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

\* ('08) 4,867억원 → ('09) 5,395 (528억원 증, 10.8%)

□ 배후 중심마을 및 면소재지를 농어촌 지역의 선도거점으로 개발

- 성장잠재력과 생활권을 고려, 3~5개 마을을 권역화하여 생활 환경정비·경관개선·소득기반확충 등 종합지원
- 주민주도의 상향식 개발이 가능하도록 마을정비조합제도 도입 등 제도 정비(농어촌정비법 개정, '09년 상반기)
-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종합개발 시범사업 추진(8개소)

\* '17까지 1,000개(중심마을 800, 소재지 200) 정비('09 : 214개, 1,740억원)

□ 마을단위 소규모 기초생활환경정비는 시장·군수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등 행정절차 간소화

- 550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상반기까지 60%(2,070억원) 예산 집행
- 사업승인 권한 이양(시·도지사 → 시장·군수)

□ 도시은퇴자 등의 유입촉진을 위한 전원마을조성 병행

- 도로, 상하수도, 전기통신 등 마을기반시설 설치 지원

\* 예산 : ('08) 103억원 → ('09) 212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촌마을종합개발 신규 권역 대상지 선정(1월)</li> <li>○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평가(2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상황 점검(5월)</li> <li>○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수원공 착공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'07년 착수권역 중간평가 실시(11월)</li> <li>○ 거점면종합개발사업 시범사업 착공(11월)</li> </ul>

# 11 저소득·취약계층 생활 지원

## 가 정부비축쌀 할인 공급 확대

◇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쌀 할인공급을 확대하여 서민가계의 생활비 부담 완화 지원  
 \* 정부쌀 할인공급 확대를 통해 1,450억원 수준의 생활비 경감

### □ 기초생활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할인공급 확대

○ 기초생활 수급자(85만 가구 153만 명)에게 정부보유 쌀을 반값 공급  
 \* 지원규모 : ('08) 7만 톤, 지원효과 750억원 → ('09p) 9만 톤, 990억원

○ 舊穀 구입 시 추가적인 공급가격 인하로 가계부담 완화 추진  
 ※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에게는 할인 공급기간을 종전 동절기 3개월 (12~2월)에서 연중으로 확대(보건복지가족부)

### □ 결식아동·노숙자 등 극빈층 대상 무료급식단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쌀(舊穀) 무상공급 검토

○ 학교급식은 30% 수준의 할인공급 지속 유지  
 \* 연간 6만 톤 지원으로 460억원 부담경감 효과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정부양곡 할인공급 추진 (연간 16만톤)(연중)</li> <li>○무료급식단체에 쌀 무상 지원 방안 마련(2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할인 공급 지속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'10년 할인공급계획 수립 (12월)</li> </ul>

## 나 농어업인 복지 확대

### ◇ 농어업인, 취약계층에 대한 학자금, 연금 등 지원 확대

#### □ 학자금 및 연금보험료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, 지원대상·기준 확대

- 농업인 본인(400여명)에 대해서도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
  - \*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지원대상 : ('08) 26천명, 816억원 → ('09) 27, 900
- 연금 보험료의 최대지원액 확대로 보험가입 등 유도
  - \* 연금 최대지원액 : ('08) 335천원/년, 884억원 → ('09) 394천원/년, 917억
- 건강보험료 지원율을 소득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
  - \* (현행) 일률적 50% 지원 → (개선) 소득에 따라 22~50% 차등 지원

#### □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가사·영농도우미 지원 확대

- 고령·취약농가를 방문, 가사활동 대행('09 : 18천 가구, 13억)
- 환자발생 가구의 시급한 농작업 대행('09 : 13천 가구, 47억)

#### □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생활상담·맞춤형 영농교육 실시(700명, 시·군별 5명)

- 「농촌의 다문화후계세대 육성 중장기계획」 마련('09상반기)

#### □ 농어촌 주민의 공공서비스 최소 수혜기준 설정 및 정책 반영

- 서비스 접근성 실태 조사('09상반기)를 거쳐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('10~'15)에 단계적 반영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 지원(1~2월)	○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(6월) ○다문화세대 육성방안 마련(6월)	○농어촌 서비스기준 마련(11월) -전문가, 관계부처 협의 등

## 다 땀감 보급 및 Green Heart 운동 전개

◇ 숲가꾸기 부산물을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랑의 땀감 나누기를 대폭 확대

\* 땀감 공급 : (작년 겨울) 1,428가구 → (금년 겨울) 9,536가구 (6.6배 증)

□ 농산촌 지역 서민·기초생활수급자에게 겨울철(10월~2월) 난방용으로 땀감 공급

○ 1만여 가구에 가구당 5m<sup>3</sup>의 땀감을 제공하여 131만 원(등유 1,130ℓ 수준)의 혜택 부여

\* 공급규모 : (작년 겨울) 6,880m<sup>3</sup>(22억원) → (금년 겨울) 45,588m<sup>3</sup>(119억원 규모)

\* 수혜대상 :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(독거노인, 소년소녀 가장, 양로원 등)

○ 화목(火木)보일러 보급 확대와 연계,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

- 화목 및 유류 겸용 보일러 보급 확대로 재생에너지인 목질계 바이오에너지의 활용도 제고

\* 화목 보일러 보급 : ('08) 750대 → ('09) 3,000

□ 농식품부 직원들이 참여하는 그린하트\*운동을 활성화하여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지원 및 성금기탁 등 추진

\* '07.12월부터 참가를 희망하는 농식품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1인당 1구좌(5,000원)이상의 성금을 모아, 독거노인을 돌보는 부녀회 등 후원

○ 본부 중심에서 벗어나 소속기관 및 단체의 참여 유도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 총 9,536가구에 대한 땀감 제공 완료(2월) ○ 화목보일러 보급 착수(3월)	○ 하반기 땀감 공급 준비	○ 총 11천 가구(잠정)에 대한 땀감나누기 시작(10월) ○ 화목보일러 보급 완료(12월)

## 라 식품·외식업계 경영난 해소

◇ 영세 식품업계의 원료구매·원산지 표시 등의 부담을 단기적으로 경감하고, 경영 개선을 위한 인프라 지원 확대

□ 식품·유통업체의 원료구매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 경색 완화

○ 저장·가공용 원료구매 용자자금(1,446억원)을 9월까지 지원하여 가격 안정 및 판로 확대 도모

□ 영세 외식업체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부담 경감

○ 돼지·닭고기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('08.12.22일 시행)는 엄격히 적용하되, 영세 음식점에는 미표시에 대해 계도기간 운용

\* 100㎡미만 업소는 3월까지, 33㎡이하는 6월까지 미표시에 대해 계도

□ 식품업체 경영 개선을 위한 R&D·교육·컨설팅 등 지원 확대

○ 식품업계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지원(150억원)

\* 식품산업 R&D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('09.3)

○ 「식품·외식기업 상담센터」('08.12월)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상시 수렴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(10억원)

\* 외식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「(가칭)외식산업진흥법」 제정 추진

○ 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(20억원)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원료자금 등 조기 지원 대상자 선정(3월)</li> <li>○ 식품R&amp;D 중장기계획 수립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세외식업소 원산지 미 표시 계도기간 운용(6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식산업진흥법 제정안 국회 제출</li> </ul>



## 마 귀농·귀촌 지원

- ◇ 조기퇴직자, 실직자 등의 선호에 따라 귀농 및 취업지원
  - 정보제공·교육, 농업창업준비 지원 및 일자리 알선

□ 농어촌종합포털을 통해 농지, 귀농, 농어촌주택 등 귀농·귀촌에 필요한 정보 제공

- 농어촌 정보 상담실 운영(한국농촌공사)으로 이주자 희망에 따라 유형별·지역별 맞춤형정보 제공 및 상담 실시

\* 웰촌(www.welchon.com) 포털 : 회원 수 183,587명, 1일 평균 5천명 방문

□ 귀농희망자, 농어촌뉴타운 입주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품목별 합숙형 농업 창업 준비 교육프로그램 운영

- 생산기술부터 경영까지 현장중심형 합숙과정(3~4개월) 운영

\* 천안연암대(채소), 여주농전(과수), 한농대(버섯), 귀농운동본부(생태농업)

- 정착자들에게 농업창업자금 융자 및 선도농가 멘토링 지원

□ 농기업체 및 대규모 농장의 수요조사를 통하여 도시 실직자, 은퇴자 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방안 강구

- 귀농·귀촌희망자와 현지 농장 간 취업알선 설명회 등을 개최, 취업 기회 확충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농어촌 종합정보포털 보완 및 홍보강화(2월)	○창업농 멘토링 실시(5월) ○귀농자 창업교육실시(5월)	○귀농자 창업교육실시(8월) ○사업실적 점검 및 평가(11월)

## 12 농어촌 산업 활성화

### 가 농어촌 향토산업 육성

- ◇ 유·무형의 향토자원을 산업화하여 농어촌 소득 기반 확충
  - 향토자원 활용형 2·3차 복합산업 인프라 조성에 4천억 원 투입
  - \* '09년 농촌활력증진사업 예산 중 상반기에 78%(2,686억원) 조기집행

- 142개 시·군의 '09년도 「활력증진계획」\*을 '08.12월말까지 승인하고, '09.1월부터 조기 사업추진('09년 3,440억원 지원)

\* 3년 단위 활력증진계획('08-'10) : 시·군 산업 육성을 위한 S/W·H/W 투자 계획, 지자체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

- 신활력사업 등 유사사업을 통합·운영, 효율성과 지역자율성 확대
- 인력양성, 기술개발, 마케팅 등 S/W부문 역량 강화, 향토기업 시설 현대화 등 투자 및 고용 유발 분야에 집중 지원
- '08년 성과 평가 및 인센티브 지원(200억원) 조기 실시(8월 → 5)

- 농공단지 조성 관련 규제완화 및 지원조건 제도 개선('09.2)

- 시·군별 단지상한면적 확대(166만m<sup>2</sup>→200), 농산업 특화단지 조성비 상향 조정 및 노후단지(조성후 20년 이상 119개소) 재정비 지원근거 마련

\* '09년 농공단지 조성 지원: 598억원, 53개소(신규 18, 계속 35개소)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'09년 활력증진계획 승인(1월)</li> <li>○ '08년 활력증진계획 추진 실적 평가(2월)</li> <li>○ 농공단지 통합지침 개정(2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향토산업 상시 컨설팅(5월)</li> <li>○ '10년 농공단지 신규대상지 선정(5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어촌기업 경영애로사항 발굴(9월)</li> <li>○ 농어촌산업 성과관리시스템 기본계획 마련(12월)</li> </ul>

## 나 농어촌 체험·관광산업 촉진

### ◇ 농산어촌 체험·관광 인프라 지속 확충 및 도시민 적극 유치

\* '09년 예산 : 967억원(인프라 : 801, 도시민 유치 등 수요창출 : 166)

### □ 체험마을, 테마공원, 교육농장, 산림휴양시설 등 총 314개소의 농산어촌 생태관광 인프라 신규 조성

#### ○ '08.12월 사업대상지를 확정, 1분기에 조기 발주

\* 농어촌체험마을 155개소, 테마공원 22, 어촌관광개발 10, 교육농장 60, 산림휴양시설 64, 치유의 숲 2, 산림문화체험숲길 90km 조성

### □ 1월중 도농교류 프로그램 및 활동계획 등을 수립·시행

#### ○ 여름철 외에 봄·가을·겨울에도 농어촌 체험·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추진

\* 휴가 캠페인, 체험마을 홍보책자 제작·배포, 농어촌 체험이야기 공모(3~10월) 등

#### ○ 내년 3월까지 육성대상 축제, 민간 도농교류단체를 선정·지원

#### ○ 체험마을 인력보강 차원에서 사무장 지원 단가를 증액하고 채용(상반기 중 124명)을 확대하여 도시민 방문에 대비

\* 사무장 : ('08) 150명(월100만원) → ('09) 274명(월120만원)

실 천 계 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도농교류 계획수립(1월) ○산음 치유의숲 개장(1월) ○농어촌마을 축제 지원대상 선정(3월)	○ 휴가캠페인 등 시행(6월)	○ 농어촌체험이야기 공모 및 선정(10월)

## IV. 위기극복 및 경제살리기

### 1 농림어업 분야 SOC 재정 조기 집행

####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

◇ 가뭄과 홍수에도 안전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 조기구축

\* 예산 : ('08) 1조6,709억원 → ('09) 1조9,295억원 (2,586억원 증, 15.5%)

#### □ 사업성과 조기 가시화를 위해 핵심시설 위주 집중 지원

- 저수지 및 양·배수장을 조기에 완비하고, 노후 수리시설은 기능 개선(30년 이상 노후수리시설 : 전체의 56.2%)
-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·2월에는 대구획경지정리, 저수지준설 등 토공사업과 자재구입에 중점을 두어 집행
  - \* 1·2월중 전국 2,500여개 사업장에서 2,616억원 집행('08년은 같은 기간 433억원 집행)

#### □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, 연내 내부개발 착공

- 내부 방수제(125km)는 공구분할(10개 예정)하여 동시 착공, 공기단축
- 상반기 중 내부토지개발 종합실천계획 마련
  - 생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중심지역으로 육성

#### □ 간척농지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고, 활용 가능 공구부터 집중 투자

- 유리온실, 물류·식품가공, 관광 등과 연계, 복합농산업 공간화
  - \* 간척농지 완공계획(총 28천ha) : ('08까지) 11.8천ha, ('09) 2.8천ha, ('10이후) 13.4천ha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동절기 공사 위주 집중지원 (~2월)	○새만금 내부토지개발 종합실천계획 수립(6월) ○간척지 활용방안 마련(6월)	○새만금 내부방수제 설계·착공(10월)

## 나 4대강 살리기와 연계 추진

◇ 농업기반 및 지역개발 관련사업을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 창출

### □ 4대강 살리기를 농어촌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

- 4대강 인근 지역의 농어촌 마을 정비 및 향토자원 산업화
  - '09년 7개 선도지역중 농촌 5개 지역(충주, 안동, 연기, 나주, 함평)에서 마을개발, 농어촌산업 지원(54개소 393억원)
- 저수지, 양·배수장, 수로 설치 등 생산기반정비(24개소 170억원)

### □ 국토부의 마스터플랜이 수립('09.5월 예정)되면, 연계되도록 사업 계획 조정 또는 보완

- 환경친화적 저수지(96개소) 리모델링 추진으로 하천유지용수 공급
-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 및 하천변 양·배수장 시설 보강
- 하천 주변마을 브랜드화 및 지역특산물·향토음식·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연계된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
  - 관광공사 등과 협조,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해외 관광수요 흡수

### □ 농업시설물 보강계획 및 주변지역 활력증진 모델 개발을 위해 농식품부-농촌공사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운용('08.12월부터)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 TF운영 및 세부기술 사항 등 검토	○ 4대강 PJ 연계 농업기반시설 정비 마스터플랜 마련(5월) ○ 영산강 예비타당성 조사(6월)	○ 4대강 PJ연계 농업기반시설 정비 세부추진방안 마련(7월)

## 다 어촌·어항 종합개발 확대

- ◇ 긴급입찰제도 등을 활용, 어항 및 어촌개발사업 조기 발주
  - 2,367억원 중 60% 이상 조기집행, 1,945명의 고용창출

### □ 어항 건설공사 조기발주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

- 국가·지방어항 74개항(국가어항 30, 지방어항 44) 건설에 1,663억원을 조기 투입하여 1,378명 일자리 창출
  - 회계연도 개시 전에 509억원(43%)을 집행하고, 하도급 시행을 통해 지방건설 경기 진작
  - \* 상반기내 국가어항은 1,114억원(96%)발주, 지방어항은 282억원(60%) 교부
- 대포항 등 8개 다기능어항 건설(조경·경관조명·바다낚시·친수 공간 조성 등)에 312억원을 투입, 258명의 고용 유발
  - 대규모 민자를 유치하여 해역별 종합관광어항 조성(4개소)
  - \* 동해안 (대포항), 남해안 (국동항), 서해안(안흥항, 흥원항)

### □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한 어촌 정주 인프라 확충

- 어촌 지역 23개 권역에 181억원을 투입하여 어업인 복지시설, 어업생산 및 소득기반시설 등 기초 생활시설 확충
  - \* 내년도 예산의 58%인 105억원을 상반기에 교부

실천계획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	○국가어항 등 설계완료 및 계약 체결(2월) -628억원 집행(26.7%)(3월)	○기성급 및 선급금 1,410억원 집행(60.1%)(6월)	○국가어항 30개, 다기능어항 8개 준공(12월)

## 라 산림 SOC 확대

◇ 임도, 사방댐, 백두대간 활용기반 조성 등 산림 SOC사업 확대 및 사업 조기 추진

□ 임도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내년도 신설 임도 타당성 평가 및 구조개량사업설계 연내 완료

\* '09년도 임도 신설 226km, 336억원, 임도 구조개량 476km, 341억원

○ 임도사업 계약체결의 기간단축과 선금금 지급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65%이상 집행

□ 재해위험 지역에 사방댐 설치를 확대하여 사전예방 기능 강화

○ 공사 착수와 동시에 선금을 지급하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 기성급 지급, 복수 준공검사 제도 1년간 한시 유보 등 추진

\* 사방댐 설치 : ('08) 376개소/1,010억원 → ('09) 733개소/1,739억원

□ 백두대간의 친환경적 활용기반 조성 및 전국 훼손 등산로 정비

○ '백두대간 숲길'(총684km)을 연차적으로 조성하고, 국립 백두대간 고산수목원·테라피 단지 신설로 고수익 관광모델 정립

○ 산림생태계 및 경관을 고려한 훼손등산로의 자연친화적 정비

\* '09년 사업량 : 799km(체험숲길 20, 훼손등산로 779), 94억원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도, 사방댐, 등산로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(3월)</li> <li>- 공사 착수 즉시 선금 지급</li> <li>○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·테라피 단지 설계(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도, 사방댐, 등산로 예산 60%이상 집행(6월)</li> <li>- 진척도에 따라 기성급 지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도, 사방댐, 등산로 준공 검사 및 대금지급 완료(12월)</li> <li>○ 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·테라피단지 설계완료(12월)</li> <li>○ 등산로 정비완공(799km)(12월)</li> </ul>

## 마 농식품 분야 전체 재정 조기 집행 계획

◇ '09전체사업비 15조 8,742억원 중 9조 5,557억(60.2%)을 상반기에 집행('08 상반기 집행율 : 48%),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유도

□ '09년 예산 조기 가통지 및 사업계획 가승인 추진('08.12.1)

○ 보조사업자는 가 승인(정부안 기준)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신청 및 선 사업 시행

-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체결, 발주, 사업공고 등 지출원인행위 추진

※ '08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'09년 회계개시 직후 자금 집행

\* 지금까지 통상 예산안 통지는 연초, 사업계획 승인은 1월말 ~ 2월 시행

□ 회계연도 개시전 예산배정을 통해 조기 자금 지원

○ 금융위기 극복, 일자리, SOC 등의 사업에 6,756억 우선배정

\* 금융위기 극복 4,857억, SOC 1,265, 일자리 44, R&D 590

□ 각종 사업추진절차 획기적 개선을 통해 조기 집행 뒷받침

○ 농림기술개발사업 등 R&D사업 연구대상자 선정·평가 기간 축소(현 3개월 이상 → 2개월)

○ 살처분 보상금 등 평가 보상비 지급방식 개선

- 현행 보상평가 종료(최소 1개월 이상 소요) 후 지급 방식에서 추정액의 50%를 가지급금으로 우선 지급토록 변경



- 어업지도선건조사업 장비확충 시 시설사업 설계기간 단축
  - 시설사업 집행 시 건별로 물가 조사하던 것을 분기별 일괄 조사 후 동 자료 활용으로 장비확충 설계기간 단축(40일 이상 → 15일 이내)
- 이차보전사업 등 정산기간 단축
  - 현재 분기별 정산을 매 2개월 정산방식으로 변경

□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총사업비 자율조정권한 확대

- 법정경비 등은 조정한도액(5%)과 관계없이 시·도에서 자체 조정
  - \* 총사업비관리지침 개정('09.12월말까지 한시 적용)

□ 자부담금 우선 집행기준 완화(농림수산사업자금관리기본규정 제4조)

- 현행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여야 국고를 지원하던 것을 한시적('09)으로 국고분 집행시마다 자부담분 분할 부담토록 완화
  - \* (현행) : 자부담비율 20%이상이고, 2억원이상인 경우는 자부담액의 반액씩 집행하고,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액 전액 집행
  - (개정) : 공사 진도에 따른 국고분 집행시 마다 자부담 비율만큼 분할 부담

□ 「예산집행특별점검반」을 운영, 월 2회 집행상황 점검 및 대책강구

- 집행계획에 따른 월별 집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점검
- 부진사업은 집행 독려 및 예산 삭감 등 페널티 부과

	1/4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총 사업비의 26.0% 집행(3월)</li> <li>- 예산 : 30,873억(27.9%)</li> <li>- 기금 : 10,362억(21.6%)</li> <li>○사업발주, 선금지급 등 집행상황 점검(~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총 사업비의 60.2% 집행(6월)</li> <li>- 예산 : 63,844억(57.6%)</li> <li>- 기금 : 31,713억(66.2%)</li> <li>○부진사업 현장점검 등(~6월)</li> <li>- 집행 장애요인 해소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상반기 집행결과 성과 평가 등에 반영(12월)</li> <li>- 우수 사업 포상, 인사우대 등의 인센티브 부여</li> <li>- 부진사업 예산감액 등 조치</li> </ul>

## 2 |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

### 가 |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

◇ '09년도 농식품분야 신규 일자리 31,967개 창출

○ 청년, 전문가 등 취업대상에 따라 차별화된 일자리 마련

□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분야 인턴제, 벤처농기업 육성 등을 통해 1,510개 일자리 추가 창출

○ 글로벌인턴, 이공계인턴, 행정인턴, 수산업 인턴 프로그램 등 농림수산분야 인턴으로 총 445개 창출

- 인턴채용자가 정규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채 시 배려

○ 벤처농기업 창업지원, 투자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(9개) 및 농어업회사설립,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205개 창출

○ 독거노인,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사·영농도우미, 다문화가정 후견 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860개 창출

□ 농식품 분야의 전문가·기술자 등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, 재취업을 촉진하도록 전문분야 일자리 14,291개 추가 창출

○ 새만금사업 및 농업생산기반, 농어촌 생활환경정비, 농어촌산업육성 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6,501개 일자리 창출

- 새만금, 저수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분야 4,215개

- 농어촌마을 종합개발 등 생활환경정비 분야 935개

- 농어촌 향토산업 육성 및 도농교류 분야 1,351개

- 수출 확대, 전통식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 식품산업분야  
3,221개 신규 창출
  - 한식세계화, 해외시장개척 강화를 통해 1,455개 일자리 창출
  - 전통 발효식품 공장건립, 시설현대화 및 유통망개발, 천일염산업  
활성화를 지원하여 225개
  - 쇠고기 이력추적제, 축산물 HACCP 인증 및 친환경·GAP 민간  
인증 등 통하여 정보관리·심사관련 인력 93명 추가 채용
  - 식품클러스터, 식문화교육 등 식품산업기반 구축 1,448개
- 농기계 임대사업, 시군단위 유통회사, 수산자원 조성 등  
농어업 생산·유통 분야 3,149개 일자리 창출
  - 11개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등 969개
  - 농기계 임대 등 농자재 산업분야 일자리 60개
  - 수산자원 조성, 양식장 환경개선 사업 등을 통해 614개
  - 축사시설 현대화,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1,506개
-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 개발 등 R&D 분야 1,684개 창출
-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취업을 위해 숲가꾸기, 연안어장 환  
경정화 등 공공근로 사업 실시로 16,166개의 일자리 추가 창출
- 산림을 활용한 탄소순환경제 활성화, 산림웰빙산업 육성, 재해  
방지 등을 통해 녹색일자리 15,810개 창출
  - \* 외환위기시 숲가꾸기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('98~'02, 연평균 13천명)
- 연안어장 환경정화 사업을 통해 356개 고용 창출

## 나 추가 일자리 창출 방안

◇ 대졸 미취업자 실업난 가중 및 귀농·귀촌 인구 증가에 대비, 기 발표한 일자리 창출 대책과 별도로 추가 대책 추진

### □ 대학졸업 미취업자 실업난 해소를 위한 “농어촌 e-서포터즈” 운영

○ 식품안전성 제고, 농어업 분야 주요 DB구축 등의 성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 배치

\* 농어촌 IT도우미, 쇠고기 이력추적, 농업경영체 등록 등

○ 직원 인건비·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재원 조달

\* 절감대상 사업 : 집행 부진사업, 고용 창출과 관련 없는 사업 등

### □ 농업R&D분야 일자리 발굴을 통해 2,757명 신규 채용('08.12.17, 농진청)

○ 국외여비, 외산기자재구입비 등 절감을 통해 162억 예산 확보

○ 농산물 생산·수출 현장기술 지원, 토양 DB 구축, 바이오·조사료 작물 생산 지원 업무 담당

### □ 조기퇴직 등으로 인한 귀농·귀촌 인구와 농어촌 인력수요를 연결

○ 축산 및 시설원예농가의 부족일손과 실직자의 구직수요를 연결하여 농촌의 신규 인력으로 활용

○ 지자체에 농어촌 일자리 알선·상담센터 설치 추진

### □ 「AGRO GREEN JOB COLLECTION」을 개최('09.1), 농림 수산식품 분야 일자리 10,000개 이상 창출 분위기 확산

## 〈 채용 박람회(안) 〉

- ◇ 목적 :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일자리(특히, 청년실업) 문제를 농림수산물식품 분야가 선도적으로 해결
  - 녹색성장과 연계하여 지속적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
- ◇ 행사명 : AGRO GREEN JOB COLLECTION
  - 부제 : “농수산물식품분야 일자리 10000개 채용 박람회”
- ◇ 일시 : '09.1월중
- ◇ 장소 : 한국마사회 신관 6층 컨벤션홀(과천 소재)
  - 농림수산물식품부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, 산림청, 농수산물유통공사, 농촌공사, 마사회, 농협, 수협 등 공동 추진
- ◇ 참석대상
  - 구인기관·업체
    - 농식품부, 농진청, 산림청 등의 공공기관과 수산물식품기업, 외식기업, 홈쇼핑업체 등 100여개 업체
  - 구 직 자 : 농어업, 식품분야 대학 졸업(예정)자 등 3만 명
    - 농수산물식품분야 공공인턴직원, 연구인턴(석·박사급) 등 채용 확대
- ◇ 주요 내용
  - 정부 지원사업 등 공공분야 일자리 수요 창출을 통한 채용 확대
    - \* '09년 정부 지원사업 수행과 연계한 일자리 적극 창출
  - 농수산물식품 분야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
    - \*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증가 등 고통 분담에 기업들의 참여 분위기 조성
  - 농수산물식품산업의 녹색 성장 관련 심포지엄 개최
    - \* 녹색산업 성장을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구현

**3****자본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**

- ◇ 민자유치를 통한 유리온실 조성 등 다양한 투자 재원 확충
- 농지·산지 이용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병행

□ 간척지에 규모화된 첨단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여 농식품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

i)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규모 농어업회사가 장기임대(30년)를 하고, 수출단지 조성

\* 대상지역: 전북 새만금(700ha), 전남 영산강(713ha)

\* 내년 3월까지 공모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, 하반기 최종 사업자 선정

ii) 유리온실 농업단지의 경우, 국가 또는 민간이 건설한 후 농가에 임대('09년부터 50~100ha 규모의 단지 2~3개 조성 추진)

\* 재원조달방식: 민간투자, 국고(fund 조성 추진), 공사채 발행 등

□ 국유 자연휴양림내 민자유치를 통한 산림휴양시설 확충

○ 레저업체 등과 국유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BTL방식 등 시설 투자·운영방안 강구

\* 국유자연휴양림(35개소) 중에서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고, 도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

□ 대출조건 개선 및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재원 확충

○ 사업성 평가를 통한 무담보 신용대출 확대('09 : 1,000억원)

○ 농식품전문투자 펀드 조성 연차적 확대('09 : 200억원 규모)

○ 전북에 조성예정인 식품클러스터 내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외국의 선진기술 및 자본 유치

\* Danone : 전북 무주 유가공 공장 투자(1천억 원, 기능성 요거트 생산계획)

□ 농식품 분야 투자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

- 외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(관계부처 협의)
- 노동관계법이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적용 완화 또는 지원 검토

□ 농지 및 산지 이용규제를 합리화

-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 철폐, 비농업인 상속농지 소유 한도 폐지 등 농지 소유·이용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실천

\* 「농지법개정안(‘08.11.28 국회제출)」을 토대로 하위법령에서 구체화

- 개발 제한 없는 ‘준보전산지’ 10만ha를 확대하여 도시·산업 용지 등으로 공급(145만ha→155만ha)

\* 연평균 9천ha 산지가 타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11년간 사용가능 물량

- 타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이 별도로 있는 공익용 산지의 행위 제한 폐지 및 장기간 타용도 이용산지의 지목변경 등 전용 허용

- 「산지관리법」에 임시 특례 규정을 두어 한시적으로 운용

- 산지전용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

- 소기업·소상공인과 전통사찰 시설 등 감면

□ 금융인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「농식품 투자 로드쇼」 개최 (1/4분기 내)

	1/4 분기	2/4분기	하반기
실천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(3.31)</li> <li>○ 투자로드쇼 개최</li> <li>○ 세제 및 노동관계법 관련 제도개선 협의(1~3월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지법 시행령 개정진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산지관리법 개정(12.30)</li> <li>○ 농지법시행령 개정(12.31)</li> <li>○ 대규모 농어업회사 최종 선정(7~8월)</li> </ul>